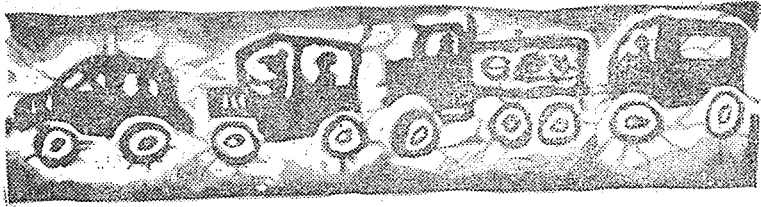


이 달의 주요 뉴스와 치협의 주변



□ 齒大定員 160名 증원 4개齒科大學 新設
 文敎部 80년대 醫療人力需給위해, 慶北齒科大學개편

내년도에 4개 대학에 齒醫豫科가 신설, 우리나라 齒科大學이 모두 9개大學으로 늘어나게 됐다. 79학년도 대학정원을 사상최대규모로 증원한 문교부는 仁濟醫科大學(부산 백병원)의 신설을 인가하고 釜山大, 全北大, 全南大, 圓光大에 齒科大學을 신설하고 대구 嶺南大와 啓明大 대학에 醫科大學을 東國大(慶州分校)에 漢醫豫科를 신설하는등 醫學분야의 정원을 5백명 증원했다. 文敎部는 79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을 일반대학 2만 7천 9백20명, 전문대학 1만 9천 4백50명, 교육대학 2천

1백20명등 모두 4만 9천 4백90명을 늘린 18만 1천 9백25명으로 확정, 6일 발표했다.

이런 대학정원의 증원은 고급인력수요에 대처하고 취업자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 대학의 정원을 대폭늘리고 수도권 인구억제책에 따라 서울시내 대학의 증원은 허용치 않았는데 醫學분야는 80년대 의료인력보급을 위해 釜山大, 全南大, 全北大, 圓光大에 각각 齒醫豫科를 신설 40명씩 1백60명을 늘렸으며, 慶北大醫大齒醫學科를 齒科大學으로, 朝鮮大學校 醫

豫科 80명, 齒醫學科60명을 각각 醫·齒大소속으로 개편했다.

또한 仁濟醫大신설과 嶺南大, 啓明大에 醫豫科를 신설, 각각 80명씩 2백40명과 延世大 原州分校·朝鮮大 醫豫科 각40명 順天鄉醫大 醫豫科 20명등 醫科大學 정원 2백40명을 늘렸고 신설되는 東國大 慶州分校에 漢醫豫科 40명을 인가했다.

이로써 醫·齒大정원은 2천 1백명에서 2천 6백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專門大學에서는 高麗大병설 醫學技術初級大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되고 大田保健專門 야간 치과기공과 80명, 치과위생과 40명이 늘어났고 圓光保健專門치과위생과 40명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됐다.

正 信 齒 科 技 工 所

指導齒科醫師 趙 鏞 起
 代 表 金 東 洛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街 198-1

(中東빌딩 401·402號室)

☎ 776-2308

□ 軍인여齒科醫師等 公衆保健醫師로 無醫지역 3年服務
閣議 國民保健醫療위한 特措法의결

國務會議은 지난 22일 軍所要에 忠당하고 남은 齒科醫師 醫師를 公衆保健醫師로 任命, 無醫地域에서 3年間 義務服務케한 후 軍實役을 免除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國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案」을 議決했다.

保社部가 成案한 이法案은 全文 17條附則으로 되어있는데 法案의 主要골자를 보면 매년 新規로 배출되는 齒科醫師 醫師가운데 軍所要를 忠당하고 남은 人力을 豫備役(將校)에 編入시킴과 동시에 公衆保健醫師로 任命, 도서·벽지등 無醫地域에서 3年間 義務服務케한 후 軍實役을 免除한다는 것이다.

無醫地域에서 義務服務期間을 3年 間으로 규정한것은 軍實役服務期間과 一致시키기 위해 취해 진것이다. 法案에는 또 公衆保健醫師로 任命된 軍未畢醫師 또는 齒科醫師는 義務服務期間동안 지정된 地域을 任意로 이탈할수없으며 별도의 의료기관을 開設하거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 法案을 이번 定期國會에서 통과되도록하여 내년 1월 1일 부터 施行하기로 했는데 軍剩餘人力의 無醫地域 파견이 내년 부터 시행될 경우 오는 80년도에는 현재의 無醫面 3백94개소에 醫師가 모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제66차 FDI總會盛了

25일 스페인서 池회장등 代表團參加

세계 齒科醫師연맹 (FDI)제66차 정기總會가 지난 2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됐다.

「새로운 치과기자재의 개발및 최근 방사선학의 발전」 「齒科醫師의 스트레스」 「구강수명」등을 주제로 30일 까지 개최된 이번 회의에 齒協에서는 池憲澤회장을 비롯 기창덕, 경혜봉, 김경남, 김인수회원등

이 대표로 참가했다.

한편 제67차 FDI총회는 내년 10월 21일부터 26일 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서울齒大 人事

서울齒大는 10일 1일자로 3명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승진 발표했다.

- ▲金光男(보철) ▲南東錫(교정)
- ▲韓秀夫(치주)

□ 創立70주년 綜合學術大會

醫協, 12일 世宗文化회관서 開幕

大韓醫學協會(韓格富)창립70주년 을 기념하는 제22차 종합학술대회

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서울세종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12일 개최식에는 朴承威 보사부차관, 金龍星국회보사분과위원장, 각 보건 단체임원및 7백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는데 韓格富醫協會長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사회의 건설은 의료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뢰받는 醫師像 확립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의학지식의 습득에 몰두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醫協창립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在美·在日등 韓人학자와 외국저명인사 1백50여명과 국내회원 1천여명이 참가했었다.

특히 醫協은 올해 처음으로 醫療器機 전시회를 개최, 10개국 71개 회사에서 3백72개 품목이 출품, 선을보였고 또한 10여개 제약회사에서 처방전에 대한 전시회도 가졌다.

한편 올해 醫學大賞에는 서울醫大 金鎮福교수가「각종 암환자의 면역반응 능력 증적에 관한 연구」로 2백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 쿠웨이트등 4個國加入

제66차 FDI總會 83년까지 總會開催地決定

제66차 세계齒科會議(FDI總會)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0여개국 대표 1만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팜」 「쿠웨이트」등 4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됐다.

“새로운 치과기자재의 개발및 최

— 各種齒科機材一切 —

各種 機械 { 賣買
 { 交換
 { 修理

大興齒科機材商社

尹 幸 吉

서울 龍井동대문구 청량리동 761(풍년빌딩 300호)

TEL 966—9 5 4 4

근 방사선「의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총회 개최지로 내년 제67차 총회를 79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파리에, 제68차 총회는 80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함부르크에서, 제69차 총회는 81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상파울로에서 제71차총회는 83년 東京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亞태지역회의는 내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제 9차 亞太회의(APDC)에 이어 제10차회의는 81년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며 83년 제11차 회의는 홍콩에서 각각 개최토록되었다.

齒協은 지난10일 이사회에서「建國30주년기념 종합學術大會」 추가 등록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받고 현장등록은 접수치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했는데 개·폐회식의 식순, 초청별 위, 기념품 및 프로그램 제작등을 확정했다.

은 12.9%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번 朴仁煥과장이 문교부 학술연구지원비로 실시한 구강건강면접조사로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과과장은 이번조사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아쉽다면서 치과의료의 정확한 공급과 수요를 위해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韓·日임프란트交流 활발
日本研修會에 國內會員
대거 參加

□ 農村주민 無許齒科 이용높아

齒科需要者 55.7%가 治療못받고

延世大 保險진료소 朴仁煥씨 調査

우리나라 농촌주민들은 아직까지 구강질환에 관한 인식부족과 거리관계로 치과의원과 무던히치과의원의 이용도가 비슷하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져 이에대한 새로운 제몽과 함께 탄력성있는 방안이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

연세대 보험진료소 치과과장 朴仁煥씨가 최근 연세의대 의료시범 지역인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과 3개면(선원·길상·내가) 3백가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수요가 있는 1백31명 중 강화읍내 치과의원의 이용율은 32.8%, 무던히치과의원 24.4%, 보건소치과 13.2%, 약국 11.5%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강화읍까지 도보로 30분내지 1시간거리에는

내가면 지역은 치과의원과 무던히치과의원의 이용도가 19.5%와 41.5%로 나타나 오히려 역조현상을 보였다.

또 이번조사에서 한달이내에 스스로 느끼거나 자각하고 있는 치과수요 주민은 19.6%로 밝혀져 일반의료수요 15%보단 약간 높게 나타났다 치과수요가 있는 주민중 44.3%는 치료를 받았고 55.7%는 치료를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치과수요주민중 치과 치료기피 이유는 심한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1.2%, 경제적이유 18.8%, 너무바쁘다 9.7%, 주위에 치과가 없다. 8.5%, 공포진 7.3%등으로 나타났는데 치주질환을 가진 주민이 72.6%이고 자각하는 주민

大韓치과임프란트학회 柳陽錫회장을 비롯한 6명의 학회대표단은 지난 8월 26·27일 이틀간 日本名古屋에서 열린 제 7회 일본치과임프란트학회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일본치과임프란트학회의 국내회원 대거참가는 韓日양국 임프란트학회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일환인데 특히 학술대회 참가후 名古屋와 東京에서 각각 1일씩 폐지하악골을 실험재료로 무료 임상연수회를 진지하게 가졌고 熱海치과 교육센터를 방문기도 했다.

한편 이번학회에는 日本회원등 2백명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는데 제 8회일본치과 임프란트학회는 내년 야마구치시에서 열리게 된다. 학회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 柳陽錫, 文洪祚, 金光鉉, 金鴻基, 池光源, 金一京, 趙載吉

서울시인정 제44호



세 창 치 과 기 공 소

대표 권 혁 문

서울시 용산구 도동 1가 19-18(금정빌딩 302)

전화 22-5970

□ 齒協의 움직임

第7回 定期理事會 會議錄

日時：1978년 10월 10일(火)19:00

參席者：池憲澤, 申旻澈, 李在賢, 金圭植, 朴忠鎬, 金鍾達, 李誠求, 姜泳圭, 趙畿鎬, 金圭玆, 金有鳳
討議事項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에 관한토의.

1) 同法 제33조 ③항에 의거 의
료보험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療養機關의 일괄지정方針에 齒協이
협조키로 하고 동 요양기관 지정에
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
로 협의.

일단 70세이상의 고령회원은 본
인의 원에따라 지정에서 제외키로
하고 ①면허대여자 ②회원의무 불
이행자 등에 대하여는 차후 상황에
따라 조치키로 함의.

나) 종합학술대회 총무부의 업무
집행계획에 관한 토의(결의사항)

1) 會長리셉션을 11월 8일 하얏
트에서 갖기로 하고 관계당국의 長
次官을 비롯한 有關機關長, 學會등
록자 전원등에 대해 10월 30일한
초청장을 발부키로 함.

2) 기념뱃지의 제작수량을 2000
개로 확정하는 한편 행사당일 배용
할 명찰의 表記文案을 확정(등록자
는 한글명과 英文 姓만을 기입, 同

伴者는 한글姓名만을 기입토록)하
고 參席者의 구분을 위해서 명찰의
색깔을 치과의사는 靑色, 기공사는
綠色, 위생사는 赤色, 학생은 옥색,
齒科醫師婦人은 粉紅色, 재료상은
黃색으로 결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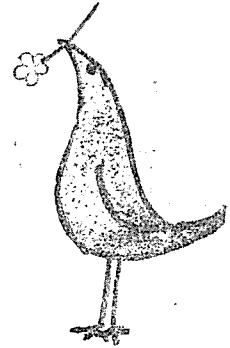
3) 同大會 프로그램은 公報部(李
在賢부회장), 초록집은 學術部(金
圭植부회장)에서, 각각 분담제작키
로 확정함.

4) 행사당일 參席者들의 교통편
의를 위해서 會議場을 왕래할 전세
버스(5대)의 주차장을 확정(세종문
화회관앞 2대, 도큐호텔앞 1대, 서
울치대 1대 장충체육관앞에 1대를
각각 배차키로 함)

5) 會議場입구에 즉석 登錄處를
설치키로 했던 원안을 폐지하고 接
受處를 改稱. 當日入場시간을 원안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키로 함.

6) 開會式 중 司會는 韓國語로
통일키로 하고 ①學術委員長의 開
會辭 ②협회장의 인사 ③亞太부회
장 축사 ④日本齒科醫師회장 축사
를 會順에 삽입토록 함.

7) 10월 25일한 學術大會참석 추
가등록을 받기로 하는등 총 21개
항목의 집행계획과 3천 7백만의 소
요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一切

(東一) 齒科材料商會

代表 李 泰 植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264

전 화 966 - 8 5 1 9

各種 材 料

(一信) 齒科材料商社

대표 서 세 창

서울시 중구 순화동 205

전 화 22-5249

□ 國校生口腔管理 形式에 不過

서울市立健康管理所 口腔保健사업

6명齒醫로 1백만 診療말도안돼

서울市立學校健康관리소가 펴고 있는 國民學校 아동들의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인력부족과 장비의 노후로 10여년간 답보상태를 거듭,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학생들의 치과진료는 요즘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지난달 29일 서울치대 2층세미나실에서 가진「학교구강보건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월례학술집담회에서 李烽基씨(서울동남치과의원장)는 서울시내 2백37개 국민학교 1백만학생들의 구강관리를 지도하는 市立學校健康관리소 구강보건실에 6명의 치과의사 1명의 위생사, 2명의 간호보조원등이 근무, 그것도 치과의사는 오전만 순회진료를 하기때문에 구강검진이나 관리는 그야말로 全無상태나 다름없다고 지적, 최소한 13개 區마다 1명의 치과의사가 분담토록 13명의 치과인력과 현재 국민학교에 방치돼있는 33개의 유니트체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동진료차가 마련되면 기초적인 구강보건사업은 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원장은 현재 6명의치과교의가 3개반으로 편성, 도보로 오전만의 순회진료를 펴기때문에 하루에 1개반이 50명내외를 진료, 서울시내

1백만학생들의 구강관리는 요원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齒醫國試科目 조정建議 朝鮮齒大서 全國齒大學長회의

全國치과대학장회의가 지난달 22일 光州조선치대 학장실에서 열려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조정등 치의학 분야의 당면과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안형규서울치대학장, 金仁哲경희치대학장, 趙泳弼조선치대학장, 등 4명의 학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치과사의 國試에 대한 과목을 조정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키로하고 ▲치대생 1백20점 학점이수에 따른

또 李원장은 적절한 치과의사의 근무가 불가능할때를 대비, 치과위생사의 교육과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내 번두리지역의 구강관리는 퇴보현상을 겪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런데 李烽基원장은 62년부터 15년간 서울市 市立學校健康管理所에 근무했었다.

적사, 박사과정에서 퇴몰이되는 과목은 줄인다는 원칙아래 차후 각치대 교무과장들이 모여 이에대한 문제를 검토, 논의키로했으며 ▲치과기재 실습용 구입은 학교대여 없이 개인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2개월마다 한번씩 열리는 전국치과대학장 회의는 오는 11월 경희치대에서 열리게 된다.

□ 次元높은 國民啓蒙 벌이기로, 設탕有害 매스컴 活用強化 設탕덜먹기운동 推進委 市道에 支部도 結成

設탕 덜먹기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池憲澤)은 올해안으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 設탕이 치아우식 유발뿐만 아닌 사람 전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 차원높은 국민계몽을 시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의실에서 열린 設탕 덜먹기운동 추진위원회는 金鍾達齒協 치무이사

새로이幹事に 선임했는데 새로 선임된 金간사는 지금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거국적인 設탕덜먹기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효과는 얻었지만 당초의 목표에는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 치협추최 전국 30주년 종합학술대회가 마무리되는 11월말이나 12월내로 학계, 언론계등 국내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 設탕이 치아 우식뿐만 아닌 우리몸에 미치

경기 제 4호

안양 (한진) 치과기공소

대표 김 갑 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 4동 676-65

전화 안양 2-6324 서울 0342-2-6324

수원 연락처 5-3510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海城) 齒科材料商社

대표 정 능 안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53

전 화 261 - 3 5 2 8

는 영향을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고
 폭넓은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
 히고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부진한
 요인의 하나인 마스크 활용의 방안
 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탕덜먹기 운동추진위원회
 는 치협, 각 市道지부와 여성단체
 협의회, 각 市道지부간에 설탕덜먹
 기 운동추진지부를 빠른시일내에
 결성키로 하고 정부관계 당국과 제

□ 齒材商工協 정기總會개최 새해豫算 9백63만여원

대한齒科機材商工協會는 지난 8
 월 제 7회 정기총회를 갖고 9백63
 만 5천 1백20원의 79년도 豫算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池憲澤 齒協
 회장과 金聖培齒技協회장을 비롯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복지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金載坤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살려 보다 단결하여
 업권신경을 기하자”고 강조했으며
 池憲澤 齒協회장은 “이번 총회를

당채 과업계에 대해 ▲식품가공물중
 설탕함유량을 50%이내로 할것▲인
 체에 무해한 인공감미료의 개발촉
 구 ▲설탕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포장지에 설탕유해의 경고문을 사
 입할 것 등 지난번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설탕에 대한 정확
 한 데이터와 새마을 어머니교실의
 강의등 계속적인 연구를 모색키로
 했다.

계기로 좋은 결과를 얻어 齒科界에
 한페이지를 기록하길 바란다”고 축
 사를 했다.

이어 李興世 감사로부터 감사보
 고를 받아드리고 회무보고, 7백3만
 1천 9백50원의 78년도 결산등을 별
 의의없이 통과시키고 년회비 3만
 원으로 책정, 전년도보다 2백39만
 4천여원이 늘어난 9백63만 5천 1백
 20원의 79년도 豫算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齒材業界분규 일단 마무리, 회장 任員辭退·再選出
 新興齒科 機材商協에 再加入

최근 齒科機材業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紛糾사건은 新興齒科產業의
 대한 齒科機材商工會 재가입과 機材
 商工協 金載坤회장이하 전일원진의
 辭退·再選出로 일단 마무리 됐다.

지난 8일 개최된 대한齒科機材
 商工協會 제 7회정기총회에서 金載
 坤회장이하 전일원진은 “회원 친목

을 돈독히 하는데 노력 했으나 그
 결과가 여의치못해 사퇴한다”는 이
 유를 밝히고 사퇴하므로 임시회장

黃永基씨 주재로 계속된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어려움이 많았으나 임
 기도 마치지않고 사퇴한다는 것은
 회원의사를 무시하는 ‘차사’라고 지
 적 남은 임기를 계속 맡도록 ‘留任’
 시키자는 손익용씨(포항치계)의 동
 의를 채택, 전일원임토록 가결함으
 로 재선임됐다.

이에 金희장은 “지난 1년간 회무
 亂을 맡아보면서 일부회원중 회원으로
 써 해야할 회의 결정사항을 안지키
 는 회원이 있었음은 유감된 일”이라
 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
 착하지말고 공적인 면에서 최소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날 金희장은 최근 齒材
 業界에 일어났던 마귀재 공동구매,
 부산齒材商탈퇴서세출등 일련의 사
 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
 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新興齒科產業(대표·李煥奎)
 은 지난 6월 27일 機材商工協의 제명
 탈퇴이후 9월들어 수차례 걸친 협
 상끝에 9월 29일 소정의임회원을 제
 출, 10월 3일 齒材商工協 임시이사
 회에서 가입이 가결되므로 탈퇴 3
 개월여만에 재가입됐다.

이로써 그동안 齒科界에 물의를
 빚었던 齒科業界일련의 분규사태는
 일단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 졌다.

— 학술 집담회 소식 —

□ 來17·18일 서울大病院 開院기념 學術大會개최

서울大病院 개원기념 學術大會가 오는 17·18 양일간 齒大·醫大 공

서울시 인정 제 7호

(중앙) 치과기공소

대표 김 창 영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3-17

전화 23-6 8 9 2

各種 齒科材料 一切

(豊田) 齒材商社

代表 崔 興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538~1 (대원빌딩
 광화문사서함 1144호 203호)

전 화 763~2 1 8 5

등주최로 개최된다.

17일 신축병원에서 醫大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學術大會는 오전 개회식에 이어「齒醫學敎育—敎과과정, 敎育방법론」(첸슨·미네소타 齒大 부학장겸 근관치과과장)이 오후에는 齒大에서「교정예방」(앤더슨·일리노이 齒大 소아치과과장)과 “근관치료의 최근연구경향”(첸슨)이 각각 발표되며 18일에는 “마취”(앤더슨) “소아교정”(소진문·일리노이 齒大 소아치과부교수) 「근관치료에 있어서 외과적처리」(첸슨) “치수발치후 병리조직학적변화”(아서히·東京 齒大 근관치료주임교수) 등 연제가 발표된다.

한편 이에앞서 16일에는 公職齒醫會와 소아치과, 보존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齒大 3층 계단교실에서 “외상받은 齒牙의처리”(앤더슨)와 “전진치수의 보전방법”(첸슨)등 2개연제의 학술강의도 있다.

□ 鄭保羅씨 總義齒特講 서울 齒醫會·捕綴學會 공동주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朴性高)는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張完植)와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울치대강당서에 鄭保羅박사(美일리노이치대교수)를 초청, 총의치(Full Denture)에 대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池憲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 2백여회원이 참석, 3시간동안 열띤과 충실한 강의에 모두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는데

특히 鄭박사는 총의치에 관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임상케이스별로 제작의 전과정을 요약하여 쉽게 풀이했다.

그런데 鄭保羅교수는 지난 1일 정부초청으로 일시 귀국 전군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었다.

한편 이날 서울시치의회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감사패와 기념품을 각각 전달했다.

□ 鄭泰英교수 特講 口腔生物集談會

대한口腔生物학회(회장·丁東均)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서울치대 2호관에서 제14회 학술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담회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서울치대 정태영교수가 Collagen Pathology att he Level에 대한 특강을 담당했다.

〓기공계 소식〓

□ 全國齒科技工所 1백63個所

지난 6월 齒科技士 To制안화이후전국에 71개 치과기공소가 신설, 齒科技工所는 모두 1백63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대한 齒科技工士協會가 최근 집계한바에 의하면 신설 71개기공소중 서울은 46개소가 새로 개설 93개소로 늘어나 전체 치과기공소의 51%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은 4개소가 늘어 7개소, 경기 인천성남에 각각 1개소씩 2개소

가 신설 7개소, 충북 청주에 2개소 신설로 3개소, 충남 대전에 3개소 신설 7개소, 전북 전주에 2개소 신설에 1개소등 3개소가 늘어 5개소, 전남 목포에 1개소 신설로 5개소, 경북 김천 구미 포항등 대구를 제외한 외각지대에 9개소가 신설 22개소로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으며 경남 진해와 울산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늘어나 6개소가 됐으며 강원과 제주에는 아직 치과기공소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 지부 소식 〓

□ 부산시 치과의사회 定期 理事會 開催

日 時: 1978. 9. 26 (火) 下午7時
場 所: 本會 會議室
參席者: 金沅佑, 李周衡, 鄭昭永, 李元容, 金鶴大, 李勝樹,

李亨卓, 全昇五, 姜達模, 朴淳德, 金漢奎, (위임 金鳳浩, 李光國)

案 件

1. 福岡 齒醫學會 參加 報告.
金沅佑會長은 金鶴大, 張光祥理

(대명) 치과기공소

대표이사 박경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9의 2호 (한일빌딩)

전화 966-3 9 9 0

各種 齒科材料 一切

(第一) 齒科材料商社

代表 안창영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0 (호산나텔당 202호)

전화 2 3 - 4 9 2 2

사를 대동하고 日本 福岡齒醫會主催 福岡西地區 齒醫學會에 參席코 다음과 같이 귀국 보고를 하였다.

9月 10日 福岡市에서 개최된 學會에 參席 하였는데 예년과는 달리 많이 발전된 學會를 보았으며 우리들도 앞으로 많은 行事に 會員을 위하여 참고를 할 점이 많았으며 福岡市 進藤一馬市長을 訪問코 양국간의 學術교류에 대하여 환담하였으며 福岡齒醫會長 中村正雄으로 부터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자구조청하여 우호증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門司齒醫會를 訪問하고 東京 帝國齒科機材商을 순방하여 우수한 기계를 本會를 통하여 판매토록 약속하였으며 日本 관광을 마치고 18日 귀국하였는데 요지의 보고가 있었다.

2. 日本 帝國齒科 기계 구입件
本會에서 공동구입키로 결의하였다.

3. 신홍(주) 제품 개선 촉구件
이영규 신홍(주) 사장이 부산을 방문하여 우리들의 요구조건을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용호동 진료기는 11月경 신형의 기계로 교체키로 합의하였다.

4.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취임에 관한 件.

① 1차 소집하여 本會에서 요구사항을 주지 시키고 친목단체로 발족하여 자체에서 회장을 선출토록 한다.

(현재 김한규회원을 간사로선임)

② 지도 치과의사의 보수에 대하여 책정토록한다.

③ 집행부가 파트별로 각 기공소를 순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지도치과의사는 배부된 유인물 규정등에 적극 협조하여 기공소 근무자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한다.

⑤ 學術 강연회 개최 件.

日本 근관 치료의 원로인 오다니 박사를 초청하여 3일간 예정으로 근관치료와 발치후 즉석 보철(텐취제작)법에 대하여 강연회를 개최키로 학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실시한다.

6. 協助 요망 사항.

① 의로 보철 자료수집 저조적극 협조 바람.

② 부정의로 행위 단속에 협조 바람.

③ 각구회장은 소속회원중 선형회원을 파악 연락바람.

7. 기타 안건

① 9月29日~10月 1日(3日間) 부산 미육군 사령부에서 개최하는 부산 78스펙타클 行事に 적극 참석바람.

② 건국 30주년 종합학술대회 참가시 단체 차량을 이용토록 연구한다.

③ 보철환자 카드 기록을 단일화 하도록 보철이사가 연구한다.

서울시 인정 제39호

地方注文拜受

조양치과기공소

代表金幸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1동 483

전화 (966) 6834

서울시 인정 38호

(친일) 치과기공소

대표 김대훈
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17
전화 70-7307

各種 齒科機器 및 材料

(清涼) 齒科材料商社

대표 양해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4의 2
(청량리역 앞)
전화 966-1110